

# AI, 우리시대의 소크라테스 될 수 있을까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세상에 이렇게 학습이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요 며칠 사이에 장안의 화제였던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행적은 온통 학습에 불을 지폈다.

우선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의 학력이 관심사였다. 중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해야 할까. 중국 명문대 그룹 C9에 속하는 저장 대학에 수석 입학했음은 물론, 2010년에 벌써부터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이라는 석사 논문을 썼다. 이런 학력(學歷: 학교를 다닌 경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 재능을 키워 선행대수, 편미분 그리고 확률 통계학에 뛰어난 학력(學力: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만든 게 딥시크의 출현 배경이었다.

량원평의 학력이 화제가 되는 건 딥시크의 거대언어모델(LLM)인 딥시크-V3와 추론모델인 딥시크-R1 때문이다. 인간과 똑같이 언어로 응답하는 생성형 인공지

능으로, 단연 독보적인 오픈AI의 챗GPT 4o와 o1에 견주어 딥시크 인공지능이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IT 거인인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니(Gemini)'를 선보일 때도 꿈쩍하지 않던 세상이 딥시크에는 생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나날이 똑똑해지는데 들이는 비용이 단연 눈에 띈다. 오픈AI가 수천억 원을 들여 GPT-4o를 교육시켰는데 딥시크는 그의 10%도 들지 않았다. 다음으로 AI로 세상을 빨아들일 것 같은 미국 패권의 위세에 중국의 한 벤처 창업기업이 일침을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딥시크의 학습능력에 있다. 딥시크는 숫자 정밀도를 최적화해 메모리를 75% 절감하고,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읽어들이 처리 속도를 2배로 높이며, 필요한 순간에만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형 학습의 결과는 당연히 딥시크와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창업자 량원평의 학습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한다. 량원평으로 치면 선행대수, 편미분, 그리

고 확률통계학에 대한 연습과 경험을 통해 복잡한 수학적 원리를 인공지능 구조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AI에게 학습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탐지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적화된 모델이나 규칙을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고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너의 영혼을 보살피라(care your souls)"고 말했다. 그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행동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유도했다.

현재적 AI는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철학적 통찰에 기반해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지만, AI의 질문은 주어진 데이터와 프로그래밍된 패턴에 기반하여 생성된다. AI가 질문을 한다면 데이터의 불완전성이나 모델 개선을 위한 추가 정보 요구에서 주로 발생할 뿐이다. 혹시 미래의 AI가 창의적 사고를 갖게 된다면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김 주 형 (금융부)

당근과 채찍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통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에게 당근을 상으로 주고 동시에 채찍질을 가하는 데서 유래한 관용어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보장을 대폭 줄인 새 실손보험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부담금이 낮다. 특히 약관의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 시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출시를 앞

둔 5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장도 줄어들어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갈아타 유인이 적다.

금융당국은 1600만명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매입만으로 효과가 미미할 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가입자 이익 침해 최소화하면서 5세대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1, 2세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남용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재매입을 통한 5세대 전환 방침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강제전환'이라는 불만이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강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매입에는 합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매입은 말 그대

로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뤄지는 거래"라며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입을 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단계"라며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은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을 꺼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강제전환을 통해 억지로 당근을 먹인다고 해도 원치 않은 보상은 오히려 반발을 유발한다. 가입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이 줄어들어 불리한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채찍의 고통이 더 크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11일 (음 1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48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60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7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4년생 금전거래는 차라리 주는 것이 좋다.



3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 49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고맙다. 61년생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73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는데. 85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38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50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속이 없다. 62년생 상대의 손실로 인해 나도 손실이나 도와라. 74년생 우물을 찾았는데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하다. 86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수주가 들어온다.



39년생 종신토록 양보해도 백 보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51년생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에 빠지지 말자. 6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맡으니 피곤. 75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가 필요. 87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40년생 아이디어로 이름을 얻는다. 5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64년생 뒤늦은 도박으로 점입가경(漸入佳境). 7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8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41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53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안다고 했다. 65년생 부모님의 지갑도 생각해 줘라. 7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89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한다.



42년생 재혼하려는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54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6년생 허망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 78년생 투자 약속은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할 것. 90년생 사돈과 뜻이 잘 맞아 이사 가는데 수월.



4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5년생 영업으로 꾸준한 이익이 온다.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91년생 타인의 이성에 유혹됨을 벗어나야 할 터.



44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56년생 달리기만 하면 앞밖에 보이지 못한다. 68년생 지인에게 손익을 너무 따지지 마라. 8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9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일시에 해결.



45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57년생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날. 69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81년생 면접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통과된다. 93년생 재난보험에 가입은 필수.



46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초행길의 산행은 조심해야. 70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도 둘러보자. 82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9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47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59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 71년생 모아 번 비상금이 바닥이 난다. 8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95년생 외국에 간 배자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 김상회의四季 역사는 흐른다

작금의 한국 사태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우리나라가, 초유의 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례가 없는 우려를 일으켰다. 현 시국을 보는 국민은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다. 미국만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립뿐만 아니라 양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양분은 놀랄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인다. 필자는 항상 역학적 견지에서 사건을 보게 된다. 우려되는 사태기는 하지만 분명 대한민국의 체질과 이성을 발전하게 하는 약초 역할이 되리라 본다. 우리 민족은 남다른 기개를 지닌 나라이고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열매를 키워 낸 나라다. 다만 그 과정에 희생당하고 더 큰 어려움에 고생할 무수한 사람들이 걱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인월(戊寅月) 즉 음력 정월과 기묘월(己卯月)인 음력 2월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다고 보니 추운 동토이긴 하나 극한을 이겨낸 뿌리여야 초목을 드리우고 굳건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송하비결이나 정감록을 보면 극도의 혼란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성인이 나타나 대한민국이 군자의 나라로서 동방인목의 기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암시한 대목을 필자는 항상 강조하고 있다. 탄허 스님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길목에는 순조롭기보다는 기폭제에 해당하는 큰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언서에 나오는 언급처럼 분명 세계사적으로도 후천갑자의 주역이 되는 국운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제는 혼란과 혼돈이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대가를 치른 뒤의 저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겨내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Advertisement for 'Sudoku 365' featuring a grid of numbers and promotional text for the '3650' and '110' editions. Includes a QR code and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Metro' magazine, listing the editorial team,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